

국내연극 세계로... 세계로...

유례없는 불황으로 얼어붙은 국내 공연계와 대조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활로를 찾는 연극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기존의 해외 진출자들이 뮤지컬이나 퍼포먼스 쪽이 주류를 이룬 반면, 최근에는 정극이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시장 진출의 폭을 넓히고 있다.

오는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국립극단(예술감독 이운택)이 선보일 연극 '귀족놀이(원제 Le Bourgeois Gentilhomme·평민귀족)'는 국내 공연을 마친 뒤, 10월 11일부터 약 1주일간 프랑스 부르타뉴의 '로리앙(L'orient) 극장'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귀족놀이' 대본의 번역 및 드라마투르기를 맡은 최준호(예술의전당 공연예술감독)는 "종전에도 해외에 우리 작품이 소개된 적은 있었지만 일회성으로 끝났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귀족놀이'는 프랑스의 유력한 극장에서 정식 공연되는 만큼 세계 시장

에 수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로리앙 극장은 '귀족놀이'의 연출을 맡은 에릭 비니에(부르타뉴국립연극센터 소장)가 예술감독으로 있는 곳. 공연기간 중 로리앙 시는 동양문화를 소개하는 페스티벌 '로리앙에서 오리

듣기 위해 귀족들의 문화를 배워가는 과정을 우스꽝스럽게 그려 당시 세대를 통렬하게 풍자한 작품이다.

지난 6월 폴란드 포즈난 시에서 열린 '폴란드 말타국제연극제'에 초청돼 성황리에 공연된 극단 여행자(대표 양

은 오는 9월 콜롬비아에서 열릴 축제 두 곳에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극단 돌곶이의 '우리나라 우투리'(이하 우투리)도 프랑스 축제의 하나인 '프리미에르 파(Premier pas)' 참가차 프랑스행 비행기에 오른다. 프랑스 유력 극장인 '태양극장' 초청으로 9월 17일부터 약 열흘간 프랑스 관객을 만나게 된 '우투리'는 지난 2002년 초연 이후 대만 러시아 등의 무대에 꾸준히 올랐던 작품. 한국의 아기 장수 우투리 설화를 소재로 꼭두각시극부터 판소리, 탈춤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엮은 연극이다.

'우투리'의 연출을 맡았던 김광림은 "단순히 이국적이고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서구 연극과 동등한 무대에서 비견될 날이 와야 한다"며 "서울공연예술제 같은 행사가 좋은 작품을 해외에 마케팅하는 자리 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영 기자/trustno1@heraldm.com

헤럴드경제 8/26

'우투리' '귀족놀이' 佛 잇단 초청 수출 타진 한국적 색채 '한여름밤의...' 도 러브콜 쇄도

엔트'를 개최, 첫 초청국으로 한국을 선정해 음악 춤 문학 요리 회화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연극 '귀족놀이'는 프랑스의 극작가 몰리에르가 집필, 연출한 코미디극으로 국내에는 '귀족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졌다. 돈 많은 평민 출신의 '주르맹'이 사랑하는 후작부인의 눈에

정웅의 작품 '한여름밤의 꿈'도 해외 무대에서 계속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 작품은 지난해 남양주 세계야외공연 축제 때 폴란드의 한 예술감독이 이 공연에 관심을 갖고 극단과 접촉, 말타국제연극제 초청으로 이어졌다. 셰익스피어 원작에 한국적 색채를 가미, 재해석한 점이 해외 관객들의 구미를 당기게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공연



국립극단이 선보일 '귀족놀이'.